

이목을 사로잡는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史草) 전인평 외.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서울: 아시아문화사, 2019.

송 방 송

1. 머리말: 이 서평의 계기와 배경을 말한다
2.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내용 개관
3. 근현대 우리음악 사초(史草)의 독창성 점검
4. 이 사초에서 발견된 옥의 티는 무엇인가?
5. 맺는말: 전인평 박사의 화려한 인생 2막을 위하여

## 1. 머리말: 이 서평의 계기와 배경을 말한다

2019년 봄꽃의 반가운 소식이 북상하는 좋은 계절에 「이강숙·문화자 부부 기증 작품전」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 작품전 기증식의 날짜는 2019년 3월 27일이었다.

이강숙(李康淑) 전 총장님을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현직 교수들과의 재회는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기증식장에서 전 총장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울적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몇 년 후에는 이 서평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울적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나설 때였다. 기념식 때 만난 전인평(全仁平) 교수가 귀갓길에서 자신의 두터운 책을 선물했을 때, 그 선물은 필자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하였다.

그 선물이란 작년 말에 편집을 끝내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다는 660쪽 짜리의 두꺼운 책이었다. 그렇잖아도 전인평 교수의 『한국창작음악사』(2018)에 이어 후속 증보판이 3월에 나올 것이라던 그 단행본이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2019)이었다. 이 선물을 받자마자 서평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번 서평의 제목을 “이목을 사로잡는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史草)”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사초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보면, ‘사관(史官)이 서술하여 둔 역사적 기록의 초고(草稿)’라고 정의하였다. 조선왕조(1392-1910) 시절 춘추관(春秋館)에서 어느 임금의 실록(實錄)을 편찬하던 관리를 사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사관이 서술한 역사기록의 초고를 사초라고 하였다.

이 책을 받은 즉시 머리말과 내용목차를 점검해본 결과, 전인평 박사가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를 편찬한 사관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또한 대한민국예술원 나덕성(羅德成) 회장의 추천사 “한국음악 현대인물사를 기록한 귀중한 기록”이라는 제목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번

서평을 “이목을 사로잡는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라고 명명하도록 만든 근거이자 이유였다.

본인은 전인평 박사의 『한국창작음악사』(2018)에 대한 서평 때 아쉬운 점을 아래의 <인용 1>에서처럼 신랄하게 비평하였다.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머리말 “한국음악을 클래식 강국으로 이끈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에서 옮긴 <인용 2>는 이 서평자의 지적에 대하여 저자가 대답한 내용이다.

<인용 1> 전인평 교수가 양악분야의 작곡가 이은돌·에케르트(Franz Eckert)·김인식·이상준·홍난파·정사인·백우용·안익태, 이상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한국창작음악사』에서 거론했을 뿐이다. 이 양악작곡가들의 창작품이 국악기로 연주하도록 작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들의 이름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비평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940년대 이전 양악 분야의 여러 작곡가와 그들의 창작품을 배제시켰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서 1939년 이전 양악작곡자들이 1920~30년대 창작한 창가·동요·가요(지금의 가곡)·창작기악곡을 모두 제외시켰다는 사실은 창작음악사라는 용어와 관련된 옥의 티라는 비평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다.<sup>1)</sup>

<인용 2> 머리말: 한국음악을 클래식 강국으로 이끈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필자는 이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은 당장 오늘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50년 100년 후에 ‘한국이 클래식 강국이 되기까지 활동한 음악인의 삶과 음악을 증언하는 책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마치 『조선왕조실록』이 후세 역사학자의 중요한 연구사료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 책이 먼 미래에 통찰력 있는 학자

1) 송방송, “우리 현대음악사의 실록에 주목하자,” 『이화음악논집』 22/2 (2018), 140-160중 146에서 인용함.

의 눈에 띄어 활용되길 기대한다. …(중략)… 이 책에 수록한 글 중에는 작고 음악인에 대한 기록은 전인평이 작성한 것이다. 생존 음악인 중 몇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있다. …2)

<인용 1> 및 <인용 2>에서 밝혔듯이, 필자의 비평을 모두 수용하고 증보하여 새롭게 펴낸 단행본이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2019)였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인평 박사의 친필 사인한 “송방송 교수님! 교수님의 감동 스토리, 도전과 희생 그리고 성취의 역사를 후세에 길이 전하겠습니다.” 2019.3. 및 한묵(翰墨)이라는 낙관까지 찍어 본인에게 선물했으니, 어찌 반갑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바로 이런 사연은 본 서평의 계기이자 배경이 되었다.

이 서평의 본론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되었다. 머리말 다음의 첫째 갈래는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내용에 대한 개관이다.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가 지니는 이 책의 독창성(獨創性: originality)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둘째 갈래의 줄거리다. 셋째 갈래에서는 이 사초에서 발견되는 옥의 티가 무엇인가?를 정확성(正確性: accuracy)이나 일관성(一貫性: consistency)의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다. 맺는말의 제목인 “전인평 박사의 화려한 인생 2막을 위하여”에서는 이 사람의 총평 및 희망사항을 열거할 것이다.

## 2.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내용 개관

이 책의 내용은 계란의 흰자에 해당하는 서장, 그리고 노른자라 할 수 있는 본론에 대하여 전인평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밝히건대, 서

2) 전인평 외,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서울: 아시아문화, 2019), 5-6에서 인용함.

장은 총론 및 양악의 네 분야, 이렇게 두 갈래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첫째 갈래의 여명기 선구자, 둘째 갈래로 성장기의 선구자, 셋째 갈래는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하였다.

서장에서 1)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이라는 제목 아래의 글은 총론에 해당한다. 2) “서양음악의 전래와 전개”에서는 작곡계·성악계·피아노계·현악계, 이상 네 분야 및 일제강점 음악인 탄압과 친일 문제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본론 “여명의 선구자”는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인의 출생연도순으로 정리한 24명의 선구자는 1) 김인식(金仁湜: 1885-1962), 2) 김영환(金永煥: 1893-1978), 3) 홍난파(洪蘭坡: 1898-1941), 4) 김문보(金文輔: 1900-?), 5) 안기영(安基永: 1900-1980), 6) 현제명(玄濟明: 1902-1960), 7) 계정식(桂貞植: 1904-1974), 8) 안익태(安益泰: 1906-1965), 9) 이인선(李寅善: 1907-1960), 10) 이혜구(李惠求: 1909-2010), 11) 이흥렬(李興烈: 1909-1980), 12) 정훈모(鄭勳謨: 1909-1978), 13) 김성태(金聖泰: 1910-2012), 14) 김동진(金東振: 1913-2009), 15) 이인범(李仁範: 1914-1973), 16) 장사훈(張師勛: 1916-1991), 17) 김자경(金慈璟: 1917-1999), 18) 김순남(金順男: 1917-1983?), 19) 윤이상(尹伊桑: 1917-1995), 20) 박민중(朴敏鍾: 1918-2006), 21) 임원식(林元植: 1919-2002), 22) 전봉초(全鳳楚: 1919-2002), 23) 김천애(金天愛: 1919-1995), 24) 이견우(李健雨: 1919-1998)이다.

“성장기의 선구자”로 선정한 11명은 1) 김순애(金順愛: 1920-2007), 2) 김희조(金熙祚: 1920-2001), 3) 나운영(羅運榮: 1922-1993), 4) 정회갑(鄭回甲: 1923-2013), 5) 안형일(安亨一: 1927), 6) 정진우(鄭鎭宇: 1928), 7) 이인영(李仁榮: 1929), 8) 백낙호(白樂皓: 1929), 9) 이경숙(李景淑: 1931), 10) 이명자(1931), 11) 황영금(黃英金: 1931), 이렇게 출생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로 선정된 24명은 1) 강석희(姜碩熙: 1934), 2) 박노경(朴魯慶: 1935), 3) 나인용(羅仁容: 1936), 4) 백병동(白秉東: 1936), 5) 이강숙(李康淑: 1936), 6) 이성천(李成千: 1936-2003), 7) 황병기(黃秉冀:

1936-2018), 8) 서계숙(徐桂淑: 1937), 김용진(金溶鎭: 1938), 10) 윤학원(尹鶴元: 1938), 11) 현혜은(玄惠恩: 1938), 12) 장혜원(張惠園: 1939), 13) 한명희(韓明熙: 1939), 14) 권오성(權五聖: 1941), 15) 나덕성(羅德成: 1941), 16) 이재숙(李在淑: 1941), 17) 한동일(韓東一: 1941), 18) 김민(金旻: 1942), 19) 신수정(申秀貞: 1942), 20) 송방송(宋芳松: 1943[1942]), 21) 김혜자(金惠子: 1943), 22) 이영조(李永朝: 1943), 23) 이해식(李海植: 1943), 24) 이경숙(李慶淑: 1944)이다.

이제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내용목차를 보기 쉽도록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내용목차

#### 서장

1.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2. 서양음악의 전래와 전개
 

가. 작곡계의 전개	나. 성악계의 전개
다. 피아노계의 전개	라. 현악계의 전개
마. 일제강점기 음악인 탄압과 친일 문제	

#### 여명기의 선구자

- 1) 김인식(1885): 우리나라 최초의 작곡가이며, 최초의 <영산회상> 채보자
- 2) 김영환(1893): 우에노음악학교 출신의 한국 최초의 피아니스트
- 3) 홍난파(1898): 한국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던 작곡가
- 4) 김문보(1900): 한국인 최초의 독창회를 개최한 성악가
- 5) 안기영(1900): 주홍 글씨의 음악가, 영혼이 자유로웠던 로맨티스트
- 6) 현제명(1902): 한국 양악사의 큰 별, 서울대 음악대학의 창설자
- 7) 계정식(1904): 한국인 최초의 음악학박사 바이올리니스트

- 8) 안익태(1906): <애국가> 그리고 <한국환상곡>을 작곡한 세계적 지휘자
- 9) 이인선(1907): 의사이며 성악가, 한국 오페라운동의 개척자
- 10) 이혜구(1909): 서울대 국악과 창설, 음악학을 정립한 실증주의 음악학자
- 11) 이흥렬(1909): 담백한 가곡의 작곡가, 한국의 슈베르트
- 12) 정훈모(1909): 1세대 성악가로 독일 가곡운동의 선구자
- 13) 김성태(1910): 중용의 길을 걸었던 순수주의 작곡가
- 14) 김동진(1913): 최초의 판소리 채보, 우리음악 찾기를 위한 신창악운동
- 15) 이인범(1914):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한 감동 스토리
- 16) 장사훈(1916): ‘서양음악의 뒤를 쫓지 말라’며 국악계를 이끈 음악학자
- 17) 김자경(1917): 한국 최초 민간오페라단 김자경오페라단 창단
- 18) 김순남(1917): 남과 북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비운의 작곡가
- 19) 윤이상(1917): 동양적 요소를 현대음악에 접목시킨 세계적 작곡가
- 20) 박민중(1918): 파리 국립음악원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및 교육자
- 21) 임원식(1919): 영재교육을 위해 서울예고 설립한 한국교향악계의 대부
- 22) 전봉초(1919): 바로크합주단의 창설자, 첼로와 함께 50년
- 23) 김천애(1919): <봉선화>의 전설, 한국전쟁 당시 음악계를 구한 잔다르크
- 24) 이건우(1919): 양악기법을 활용한 민족음악 바탕의 작곡가

### 성장기의 선구자

- 1) 김순애(1920): 민요선율을 도입, 화려한 피아노 기교의 가곡작곡가
- 2) 김희조(1920): 양악과 국악을 아우른 작곡가
- 3) 나운영(1922): 선 토착화(土着化) 후 현대화(現代化)의 기수
- 4) 정회갑(1923): 최초의 오선보 농악채보, 최초의 가야고협주곡 작곡자
- 5) 안형일(1927): 단신 월남하여 한국오페라를 개척한 테너
- 6) 정진우(1928): 6.25전쟁으로 두 발을 잃고 피아노를 얻었습니다

- 7) 이인영(1929): 해방 후 한국 성악의 차원을 높인 성악가
- 8) 백낙호(1929): 풍부한 예술감각으로 청중을 매료시킨 건반의 미술사
- 9) 이경숙(1931): 아카데믹하고 순수한 열정의 소프라노
- 10) 이명자(1931): 한국 첫 해외유학과 여성작곡가, 한국 여성작곡계의 대모
- 11) 황영금(1931): 함경도 또순이, 오페라 전문가수 황토스카

###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

- 1) 강석희(1934): 한국 최초의 전자음악 작곡가
- 2) 박노경(1935): 최초의 독일 성악유학생, 한국오페라의 별이 되다
- 3) 나인용(1936): 토기장의 마음으로 전통사상을 현대음악에 투영시킨 작곡가
- 4) 백병동(1936): 한국 현대음악 작곡계의 지진계
- 5) 이강숙(1936): 음악적 모국어 찾기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설
- 6) 이성천(1936): 의사의 길을 포기한 학(鶴)을 닮은 작곡가
- 7) 황병기(1936): 첫 가야고 현대곡 작곡, 국악의 사회적 인식을 바꾼 음악가
- 8) 서계숙(1937): 6.25전쟁 덕택에 시작한 피아노
- 9) 김용진(1938): 지휘자 행정가 그리고 국악계의 별난자
- 10) 윤학원(1938): 한국 합창계의 대부, 합창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11) 현혜은(1938): 흥 · 늠름버앙상블을 창단하여 음악감독으로 활동에 헌신
- 12) 장혜원(1939): 나의 삶 나의 음악(My Life, My Music)
- 13) 한명희(1939): 하늘의 음악을 찾아 나선 선비 음악학자
- 14) 권오성(1941): 현장조사의 태두, 국악 세계화의 선구자
- 15) 나덕성(1941): 사랑과 감사의 첼로인생 그리고 마지막 봉사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 16) 이재숙(1941): 수많은 최초 기록을 만들어 온 국악계의 선구자
- 17) 한동일(1941):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던 나라에서 온 음악신동
- 18) 김민(1942): Musik ist mein Leben!(음악은 내 인생의 전부)
- 19) 신수정(1942): 화려한 피아니즘,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음악세계의 피아니스트
- 20) 송방송(1943[1942]): 일해음악학(一海音樂學)의 학문적 접근방법론 [을 제시한 음악학자]
- 21) 김혜자(1943): 다양한 장르의 총체적 존재론을 고민한 작곡가
- 22) 이영조(1943): 서양음악과 전통음악, 과거와 현대의 혼합주의 작곡가
- 23) 이해식(1943): 한국 토속민요를 예술음악으로 승화시킨 작곡가
- 24) 이경숙(1944): 6.25전쟁 중에 만난 피아노, 이후 음악과 전쟁이 시작됐다

### 3. 근현대 우리음악 사초(史草)의 독창성 점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처음으로 생각해내거나 무엇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작품을 독창적 또는 창의적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독창성(originality) 또는 창의성(creativity)의 관점에서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을 조명해볼 때, 무엇이 저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인지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지를 검토해야만 이 책의 독창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인평 박사는 그의 머리말에서 이 책의 편찬목적 및 기획 동기와 더불어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제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용 3-1> 및 <인용 3-2>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인용 3-1> **머리말: 한국음악을 클래식 강국으로 이끈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이 책을 쓰는 목적은 한국에서 19~21세기를 거쳐 활동한 음악인들의 놀라운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략)… 그 분[여러 선배 음악인]들의 귀중한 체험을 오늘의 음악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4쪽)

<인용 3-2> 이 책의 수록 범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작곡가인 김인식(1885-1962)부터 1945년 해방둥이까지로 잡았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여명기 선구자들의 활동을 조명하였고, 둘째 부분은 성장기의 선구자, 셋째 부분은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로 나누어 서술하였다.<sup>3)</sup> (5쪽)

옛날 조선왕조의 춘추관 소속 사관처럼 후세 사람을 위하여 선배 음악인들의 활동상황을 기록하려는 것이 편찬 목적임을 전인평 교수는 <인용 3-1>에서 명백하게 밝혔다. 또한 후배 음악인들의 귀감(龜鑑)으로 삼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했다는 것도 여느 책에서 찾기 어려운 창의적 아이디어로 꼽힌다. 이런 편찬목적 및 기획의도가 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지 않은 저자의 독특한 아이디어다. 그러므로 그 편찬목적 및 기획의도는 이 책의 첫째 독창성으로 꼽아야 할 근거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전개한 우리 근현대음악사를 여명기(黎明期)·성장기(成長期)·세계화기(世界化期), 이렇게 세 시기로의 구분은 이 서평자가 알기로는 이 단행본의 저자가 제시한 최초의 시대구분론(時代區分論)이어서 독창적 아이디어의 결실이라고 평가한다. 여명기의 선구자 24명, 성장기의 선구자 11명, 세계화기의 선구자 24명, 이상 총 59명의 음악인을 전공 분야별로 골고루 선정한 것도 전인평 박사의 탁월한 안목

3) 전인평 외,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4-5에서 인용함.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최초의 시대구분론에 따른 저자의 탁월한 안목을 이 책의 둘째 독창성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구자들 총 59명의 뚜렷한 업적을 한 문구로 짧게 표현한 기술방식(2항의 내용목차 참조)도 역시 전인평 박사의 창의성과 관련한 이 책의 셋째 독창성으로 꼽히는 근거다. 이제 저자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짧은 문구의 몇 사례를 뽑자면 다음과 같다.

여명기의 선구자 중에서 김인식(金仁湜)의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작곡가이며, 최초의 <영산회상> 채보자”라고, 홍난파(洪蘭坡)는 “한국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던 작곡가”라고, 현제명(玄濟明)은 “한국양악사의 큰 별, 서울대 음악대학의 창설자”라고, 김자경(金慈璟)은 “한국 최초 민간오페라단 김자경오페라단 창단”이라고, 그리고 윤이상(尹伊桑)은 “동양적 요소를 현대음악에 접목시킨 세계적 작곡가”라고 서술하였다.

성장기의 선구자 중 김희조(金熙祚)는 “양악과 국악을 아우른 작곡가”라고, 나운영(羅運榮)은 “선 토착화(土着化) 후 현대화(現代化)의 기수”라고, 안형일(安亨一)을 “단신 월남하여 한국오페라를 개척한 테너”라고, 그리고 황영금(黃英金)을 “함경도 또순이, 오페라 전문가수 황토스카”라고 기술하였다.

세계화를 이끈 선구자 중 이강숙(李康淑)은 “음악적 모국어 찾기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설”이라고, 황병기(黃秉冀)는 “첫 가야고 현대곡 작곡, 국악의 사회적 인식을 바꾼 음악가”라고, 한동일(韓東一)은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던 나라에서 온 음악신동”이라고, 그리고 신수정(申秀貞)은 “화려한 피아니즘,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음악세계의 피아니스트”라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한 음악인의 이색적 특징이나 음악사적 업적을 한 문구로 표현한 것이야 말로 전인평 박사의 창의적 서술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하자면, “동양적 요소를 현대음악에 접목시킨 세계적 작곡가”라는 문구는 윤이상의 작품세계를 압축해서 표현한 글이다. 그리고 “첫 가야고 현대곡 작곡,

국악의 사회적 인식을 바꾼 음악가”라는 표현은 황병기의 삶을 보여주기  
에 충분한 문구다.

또한 김인식을 “최초의 <영산회상> 채보자”라고, 김영환을 “우에노음악  
학교 출신의 한국 최초의 피아니스트”라고, 계정식을 “한국인 최초의 음악  
학박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김동진(金東振)을 “최초의 판소리 채보자”  
라고, 김자경을 “한국 최초 민간오페라단 김자경오페라단 창단자”라고, 정  
회갑(鄭回甲)을 “최초의 오선보 농악채보자”라고, 그리고 강석희(姜碩熙)  
를 “한국 최초의 전자음악 작곡가”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최초라는 말이  
들어간 음악인들은 우리 근현대음악사의 큰 별이어서 유명한 인물로 평가  
된다.

우리 근현대음악의 선구자 59명에 대한 적절한 문구는 각 인물의 음악가  
적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표현이다. 한 음악가의 음악사  
적 업적이나 특징을 적절하게 기술한 이런 함축적 문구는 전인평 교수의  
아이디어를 독창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이자 이유다.

정년퇴임(2008) 이후 이 서평자는 기존 연구서<sup>4)</sup>에 의거하여 현존하는 음  
악인을 제외한 국악·양악 분야의 인물사전<sup>5)</sup>을 펴낸 바 있다. 기존 음악인  
명사전에 없는 다음의 <인용 4-1> 및 <인용 4-2>에 제시한 새로운 학술정  
보는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독창성을 한층 높여주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 서평자의 『한겨레음악대사전』(2012)을 개정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새 학술정보이기 때문이다.

<인용 4-1> 6. **현제명(1902): 한국양악사의 큰 별, 서울대 음악대  
학의 창설자**

4) 예컨대, 허경진, 『樂人列傳』(서울: 한길사, 2005),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1 및 2』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 1998 및 2000), 송방송, 『조선음악인열전』(서울: 보고사,  
2010) 및 『한국현대음악인사전』(서울: 보고사, 2011), 『한국인물대사전』(서울: 중  
앙M&B, 1999), 손태룡, 『한국서양음악가연구』(서울: 보고사, 2011) 등.

5) 宋芳松 저, 『한겨레음악대사전』(서울: 보고사, 2012).

일제강점기 여러 가지 군국가요(軍國歌謠)가 발표되던 1937년 9월 26일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 라디오를 통해 조선문예회(朝鮮文藝會)에 의한 군가 <정도(征途)를 전송하는 노래>와 이종태(李鍾泰) 작곡의 <방호단가> 및 이면상(李冕相) 작곡의 <정의의 스승이여>를, 그리고 같은 해 11월 7일에는 전국 중계방송으로 <전장의 가을>(일본어)·<조선청년가>(일본어) 및 <반도 의용대>(조선어)를 방송하였다. 1939년 경성방송국이 편찬한 『가정가요』 제1집에 <산에 들에>와 <논오는 밤>이 실려 있다.<sup>6)</sup>

### <인용 4-2> 3. 나운영(1922): 선 토착화(土着化) 후 현대화(現代化)의 기수

“범종교적 신앙 노선,” “나운영의 회개와 서원,” “서양 찬송가 작사자와 작곡자들은 나운영보다 경건한가,” “경건한 신앙인 나운영과 자유분방한 작곡가 나운영,”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희망하며.”<sup>7)</sup>

<인용 4-1>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한 군국가요(軍國歌謠) 관련 여러 작곡가와 곡명은 이 서평자의 사전<sup>8)</sup>에 나오는 현제명(玄濟明)의 내용 중에는 없는 새로운 학술정보다. 그리고 <인용 4-2> 나운영(羅運榮) 관련 소개목에 나오는 내용 역시 필자의 사전<sup>9)</sup>에 나오는 나운영의 내용 중에는 없는 새 학술정보다. 이런 새 학술정보는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넷째 독창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요컨대, 1990년도에 본인도 한번 시도한 바<sup>10)</sup> 있었던 값진 성과, 곧 『韓

6) 전인평 외,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62.

7) 전인평 외,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 172-171.

8) 宋芳松 저, 『한겨레음악인대사전』, 957-959.

9) 宋芳松 저, 『한겨레음악인대사전』, 275-276.

10) 필자가 한번 시도했던 바가 있었음. 1988년 창립한 韓國音樂史學會의 『韓國音樂史學報』 제4집(1990) 이후부터 “근현대음악가 열전”의 제목 아래 金竹坡(1911-1989)·金命煥(1913-1989)·李珠煥(1909-1973)·申快童(1909-1978)·姜太弘(1893-1957)·金相

『國音樂史學報』에 발표한 「근현대 음악가 열전」이라는 연재물을 작곡 전공자인 전인평 교수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확대시켜서 단행본으로 펴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앞서 거론한 이 책의 여러 창의적 아이디어들이야 말로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거니와 저자가 스스로 깨우친 사명감(使命感)과 소명의식(召命意識)에 따른 소중한 결실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저자의 특이한 독창성은 다음 항목에서 지적할 옥의 티를 모두 덮어버리고도 남을 값진 성과라고 이 서평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 4. 이 사초에서 발견된 옥의 티는 무엇인가?

사초나 실록(實錄) 또는 학술서에서는 독창성(originality) 못지않게 정확성(accuracy)이 중요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의 견지에서 조명하여 옥의 티를 지적하는 작업은 필수다. 만약 아래에서 지적한 옥의 티를 개정판의 출간 때 저자가 모두 수정한다면,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의 내용은 더욱 충실해질 것이고, 또한 그 학술적 가치도 더불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를 받아마자 제일 먼저 찾아본 글은 전인평 박사의 청탁을 받고 이 서평자가 기고한 “일해음악학(一海音樂學)의 학문적 접근방법론”이었다. 그 기고문이 시작하는 527쪽을 폈을 때, 필자의 눈에 잡힌 첫째 옥의 티는 1943년이라는 송방송(宋芳松)의 틀린 출생연도였다. 이 틀린 출생연도는 9쪽의 내용목차에도 그대로 제시되었다.

그 기고문에 부록한 “一海 宋芳松 박사의 약력 및 연구업적”의 <출생>에 1942년 11월 9일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틀린 출생연도를

---

麒(1899-1965)·玄濟明(1902-1960), 이상 7명의 일대기를 집필자들에게 부탁하여 연재한 바 있었음. 그러나 연재 후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은 무산됨.

어디서 구해 제시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전인평 교수가 출판사와의 약속 시일에 쫓기면서 생긴 결과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출생 연대 관련 몇 사례를 점검했을 때, 또 다른 옥의 티를 발견하였다.

둘째로 틀린 출생연도의 표기는 7쪽의 홍난파(洪蘭坡: 1898) 및 22쪽의 홍난파(1889-1941)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인선(李寅善)의 출생연도 역시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다. 밝히건대, 7쪽의 이인선(1907) 및 20쪽의 이인선(1906-1960)이 그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출생연도의 표기를 셋째 옥의 티로 지적한다. 이와 비슷한 옥의 티는 15쪽의 채동선(蔡東鮮: 1901- 1953) 및 16쪽의 채동선(1900-1953)에서도 발견된다.

서술방법을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켰을 때, 우리는 일관성(consistence)이 있다고 평가한다. 일관성의 관점에서 무엇이 옥의 티인지를 지적하자면 다음의 몇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지적하자면, “현악계의 전개”라는 제목의 22-23쪽에서 홍난파(1889-1941) 및 안병소(安炳昭 1908- 1979)의 생몰 연대를 적시하였다. 그렇지만 계정식의 생몰 연대를 생략했다는 점이 일관성의 견지에서 보면 옥의 티다. 계정식(桂貞植 1904-1974)이라고 표기했을 때, 그것은 서술방식의 일관성에 부합한다.

다음으로는 아래 <인용 5>의 두 사례에 의거하여 정확성의 관점에서 무엇이 옥의 티인지를 점검하도록 하자.

<인용 5-1> 66쪽의 각주 11(이하 66n11): 이인영, 『한국양악 시원을 찾아서 - 해방 전후 60년 일본과의 관계를 찾아서』(동서문화사, 217). 29-37쪽.

<인용 5-2> 74n15: 진환주. “안익태의 삶과 음악세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6쪽.

<인용 5-1>의 사례에서 지적되어야 할 옥의 티는 부정확한 출판정보 및 부적절한 부호 사용이다. 학술서의 출판정보에서 밝혀야 할 기본사항은

출판지명·출판사명·출판연도, 이상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는 세계음악학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국제기준치(global standard)의 학술적 규칙이다. 출판지명의 생략 및 출판연도의 부정확성과 관련된 해결의 실마리를 이서평자가 658쪽의 참고문헌에서 찾았다. 그 실마리를 제시하건대, 『한국양악 시원을 찾아서』의 출판지명은 서울이고, 출판연도는 2017년이다.

<인용 5-2>의 사례에서는 세계음악학술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석박사학위 수여 대학교의 소재지 생략을 옥의 티로 지적한다. 불행스럽게도 659쪽의 참고문헌에서도 송실대학교의 소재지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송실대학교가 서울에 있음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세계음악학계의 학술적 국제규칙에 따라서 수정한 각주를 제시하면 다음의 <고침 1>과 같다.

<고침 1-1> 66쪽의 각주 11(이하 66n11): 이인영, 『한국양악 시원을 찾아서: 해방 전후 60년 일본과의 관계를 찾아서』(서울: 동서문화사, 2017), 29-37쪽.

<고침 1-2> 74n15: 진환주, “안익태의 삶과 음악세계에 대한 연구”(서울: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6쪽.

이 책의 참고문헌에서 발견되는 옥의 티는 없는지? 다시 말해, 세계음악학술계의 국제규칙에 따라서 무엇이 수정해야 할 문제점인지를 <인용 6>의 두 사례에 의거하여 거론할 순서다.

<인용 6-1> 656쪽: 김용환. 『윤이상연구』. 서울: 한국예술연구소, 1995.

<인용 6-2> 657쪽: 앤드류 킬릭, 김희선(옮김). 『황병기연구: 한국 전통음악의 지평을 넓히다』. 서울: 도서출판 풀빛, 2015.

<인용 6-1>의 사례에서 지적할 옥의 티는 한국예술연구소(韓國藝術研究

所)가 독립기관인가, 아니면 어느 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소인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예술연구소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한국예술종합학교(韓國藝術綜合學校) 소속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학교명의 삽입은 필수다.

<인용 6-2>에 나오는 번역서의 경우에 발견되는 옥의 티는 원저자와 역자의 표기 순서 문제다. 번역자 김희선(金希鮮) 옮김이 먼저 나와야 하고, 원저자 앤드류 킬릭(Andrew Killick)을 괄호 속에 표기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학술규칙<sup>11)</sup>이다. 이제 상기 지적사항을 수정한 원안을 제시하면 <고침 2>와 같다.

<고침 2-1> 656쪽: 김용환. 『윤이상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고침 2-2> 657쪽: 김희선 옮김(앤드류 킬릭 지음). 『황병기연구: 한국전통음악의 지평을 넓히다』. 서울: 도서출판 풀빛, 2015.

정확성의 견지에서 조명할 때, 이 책의 참고문헌에 나오는 논문의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할 차례다. 바꾸어 말하건대, 참고문헌의 논문에서 어떤 옥의 티가 본인의 눈에 잡혔는지를 다음의 <인용 7>의 두 사례에 의거하여 점검하련다.

<인용 7-1> 657쪽: 宋芳松, “韓國音樂學의 成長過程과 當面問題,” 『民族文化研究의 方向』. 경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인용 7-2> 659쪽: 조선우, “한국 가톨릭 성가의 여제와 오늘,” 『한국음악사학보』(서울: 한국음악사학회, 1995).

<인용 7-1>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옥의 티는 논문집에 기재된 논문의 시

---

11) 송방송,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서울: 음악춘추사, 2002), 141-142의 각주 46-50참조.

작쪽 및 끝쪽의 표기 생략이다. “韓國音樂學의 成長過程과 當面問題”라는 논문은 1980년 1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및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때, 이 서평자가 발표한 글이다. 그 학술대회 때 발표한 논문집이 『民族文化研究의 方向』이다. 그러므로 논문의 시작쪽과 끝쪽의 표기는 국제관례의 학술규칙임에 주목해야 한다.

<인용 7-2>에서의 문제점은 1) 학술지의 『한국음악사학보』라는 한글명이고, 2) 『韓國音樂史學報』의 호수 및 쪽수 생략, 그리고 3) 한국음악사학회의 틀린 소재지 표기다. 본래 한자로 적힌 <인용 7-1>의 논문집 『民族文化研究의 方向』을 전인평 교수가 그대로 옮겼듯이, 한국음악사학회(韓國音樂史學會)의 원래 학술지명은 한글이 아닌 한자의 『韓國音樂史學報』를 한글로 바꾼 것은 국제관례의 규칙에 어긋나는 첫째 옥의 티다.

둘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학술지의 호수, 곧 제14집 및 35쪽-68쪽라는 쪽수 표기의 생략도 국제관례의 학술규칙에 어긋나는 옥의 티다. 그리고 셋째 옥의 티로 지적한 한국음악사학회의 소재지는 필자가 1998년 영남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옮기기 이전에는 경산(慶山)이었다. 따라서 1995년 당시의 한국음악사학회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상기 지적사항을 수정한 원안은 <고침 3>과 같다.

- <고침 3-1> 657쪽: 宋芳松, “韓國音樂學의 成長過程과 當面問題,” 『民族文化研究의 方向』(경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145-72쪽.  
 <고침 3-2> 659쪽: 조선우, “한국 가톨릭 성가의 어제와 오늘,” 『韓國音樂史學報』(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5), 제14집, 35쪽-68쪽.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사의 근현대편을 서술할 때의 사초라고 머리말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문제점은 그런 사초를 학술적으로 널리 그리고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명 등을 비롯

한 색인(索引: index), 곧 찾아보기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요소 중의 하나를 전인평 박사가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초에서 필수적인 인명색인의 생략을 옥의 티로 지적하는 이유다.

전인평 교수는 22~23쪽의 현악계의 전개에서 계정식(桂貞植)과 안용구(安容九)의 제자들을 여러 명 언급하였다. 정희석(鄭熙錫)·문학준(文學準)·최영우·배석빈 등은 계정식의 제자이고, 김민(金旻)·서순정(徐純貞)·박은성·이종협·평태식(平泰植)·동형춘·임동창(林東昌)은 안용구의 제자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후학들을 많이 양성한 계정식 못지않게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안용구를 이 책에서 제외시킨 점도 옥의 티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음악학박사(Ph.D.)이자 작곡가 김진균(金晉均 1925-1986) 교수는 주로 대구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가곡작곡집을 비롯해 경북대 예술대학의 설립자이자 국악과의 창설자 등의 업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 책에 포함시켜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5~30쪽에서 일제강점기의 친일음악가를 논의할 때 전인평 박사는 대중음악계의 이애리수(李愛利秀)·남인수(南仁樹)·반야월(半月月)·손목인(孫牧人)·박시춘(朴是春)·백년설(白年雪) 등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대중음악인을 찾아보기에서 정리했을 경우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음악인의 이름을 비롯한 저명한 음악인들의 이름이 찾아보기(index)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옥의 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거론한 바를 요컨대, 세계음악학술계의 국제규칙에 의거하여 이 서평자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후학들의 연구성과를 서평할 때마다 21세기 한국음악학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 한자성어로는 ‘정중지와’(井中之蛙)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한반도 안에서의 축구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양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의 세계축구경기에 출전할 선수 양성이 시급

하다는 뜻이다. 그런 희망사항 때문에 국제적 안목에서 평가하려고 시도한 이번 서평도 예외적일 수 없었다.

## 5. 맺는말: 전인평 박사의 화려한 인생 2막을 위하여

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교수의 대부분은 삶의 활력소를 잃은 탓인지 몰라도 뚜렷한 업적을 발표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고희(古稀)를 넘긴 전인평 박사는 인생황혼기에 이르렀지만, 인생기관차의 엔진이 아직 식지 않고 힘차게 작동하고 있음을 최근 그의 저작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현대음악사의 실록으로 이 서평자가 평가한 『한국창작음악사』(2018)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2019), 곧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를 자랑스럽게 펴냈으니 말이다.

남의 간섭을 받거나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이라고 이른다. 전인평 박사의 이번 저작물도 지난번 『한국창작음악사』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망의 결실, 달리 표현하자면, 유유자적한 삶의 결실임을 이번 서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렇듯 자유의지의 욕망, 바꾸어 말하건대, 스스로 깨우친 사명감과 더불어 소명의식에 따라 외골수의 학자적 인생을 성실하게 걷는 자랑스러운 후배 교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보람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원동력을 깨우치도록 이끈 인생교훈을 이 서평자를 비롯한 음악인 모두에게 저자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교훈은 전인평 박사의 화려한 인생 2막을 축복하는 이유다. 또한 그의 화려한 인생 2막의 결실에 대한 이번 서평의 제목을 “이목을 사로잡는 우리 근현대음악의 사초(史草)”라고 붙인 근거이기도 하다.

이번 서평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은 우리 근현대음악사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그리고 모든 대학도서관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소중한 사초, 곧 우리 근현대음악사료입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전인평 박사가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후배 음악인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음악인들이 전개한 생생한 삶의 흔적을 담은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을 후배 음악인 모두가 자신의 서가에 반드시 비치해야 마땅하다.

농부는 자신이 흘린 땀만큼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마련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물 때 농작물에 물주고 장마 때에는 밭고랑을 쳐서 물을 빼는 노력 없이 농부는 결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인평 교수의 『한국음악 선구자들의 삶과 음악』이라는 저작물은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는 말이 옳음을 입증해주었다. 머지않아 또 다시 우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업적을 전인평 박사가 펴내리라는 희망을 이 서평자는 버리지 않는다. 앞으로 인생기관차의 엔진이 식을 때까지 건강하게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라고 기원하면서 필을 놓는다.

“더욱 알찬 인생 2막을 위하여 파이팅!, 전인평 박사!”